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3월호

Contents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10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1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6



〈요약〉

한일 무역의 2021년 2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44,810	9.5	42,193	14.1	2,617
일본 부분	2,182	-3.7	4,108	8.9	-1,926
일본 비중	4.9		9.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2월 상황

	2020년 2월	2021년 2월	증감률
수출(백만¥, %)	6,319,706	6,038,238	-4.5
수입(백만¥, %)	5,206,662	5,822,376	11.8
수지(백만¥, %)	1,113,044	215,862	-80.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3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8,536	4,038	18,687	7,410	27,873	11,145
한국 부분(억¥)	319	85	119	50	75	51
한국 비중(%)	3.7	2.1	0.6	0.7	0.3	0.5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월 12일, 2월 8일, 3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2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2월	2021년2월	증감률		2020년2월	2021년2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85,212	65,582	-90.4	전체	1,085,147	7,400	-99.3
방한 일본인	211,199	1,719	-99.2	방일 한국인	143,896	900	-99.4
일본인 비중	30.8	2.6		한국인 비중	13.3	12.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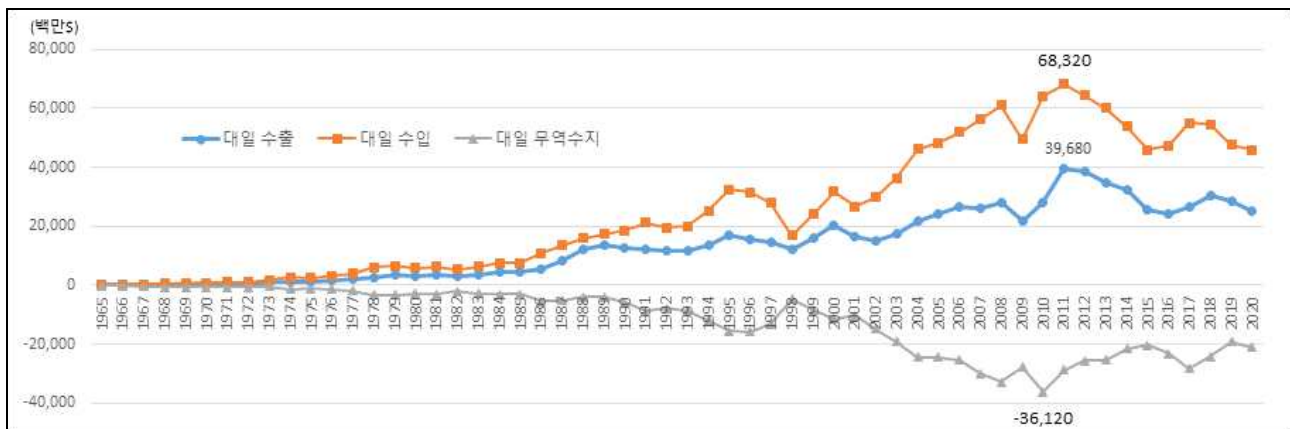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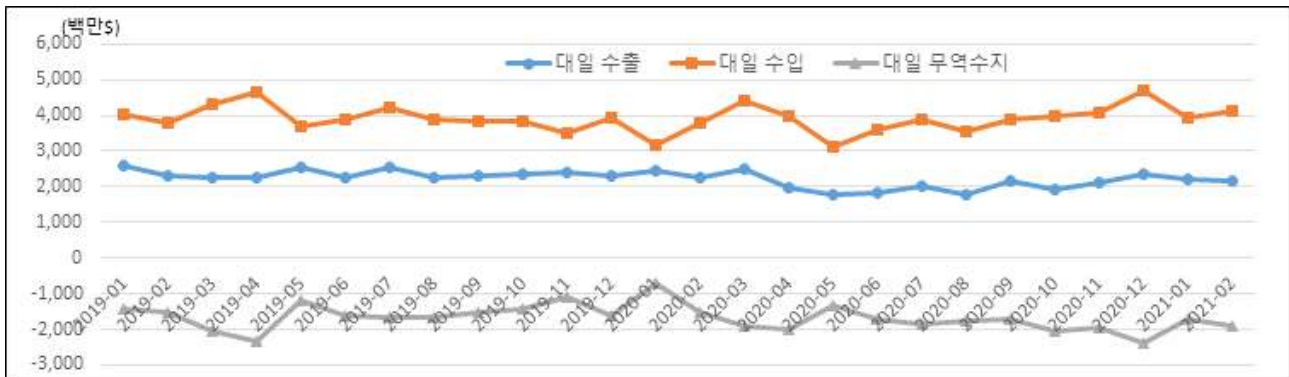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2월에는 전월대비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월 및 2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월에는 전월대비 감소, 2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20년 5월 감소 후 6월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월에는 전월대비 감소, 2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1년 2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대일(對日) 수출은 3.7% 감소하였지만, 대일 수입은 8.9%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2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44,810	9.5	42,193	14.1	2,617
일본 부분	2,182	-3.7	4,108	8.9	-1,926
일본 비중	4.9		9.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2월에 전년동월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9.5%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3.7% 감소하여 21.8억 달러가 됨
- 2021년 2월에 전년동월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14.1%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8.9% 증가하여 41.1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9.3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9%였고, 수입 경우는 9.7%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2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금액이 증가한 품목 수가 6개였음

<표2> 한국의 2021년 2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 위	품목명	2020년 2월(백만\$, %)			2021년 2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265	-1.4	-1,507	2,182	-3.7	-1,926
1	광물성연료	400	-13.4	362	379	-5.5	324
2	철강제품	277	-18.8	-154	283	2.4	-136
3	정밀화학제품	168	1.1	-200	192	14.3	-173
4	금속광물	114	64.6	62	139	21.6	77
5	전자부품	126	-7.4	-337	133	5.3	-415
6	산업용전자제품	150	64.1	-75	123	-17.9	-107
7	석유화학제품	112	-4.3	-155	117	4.7	-166
8	농산물	90	9.0	74	80	-11.5	61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83	-0.3	-24	67	-18.4	-42
10	플라스틱제품	63	14.5	-119	64	0.7	-150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1년 2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 위	품목명	2020년 2월(백만\$, %)			2021년 2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772	-0.9	-1,507	4,108	8.9	-1,926
1	정밀기계	425	32.5	-382	596	40.4	-557
2	전자부품	463	2.6	-337	548	18.4	-415
3	철강제품	430	-17.3	-154	419	-2.6	-136
4	정밀화학제품	368	-3.6	-200	365	-0.8	-173
5	석유화학제품	266	-10.8	-155	283	6.2	-166
6	산업용전자제품	225	7.2	-75	230	2.1	-107
7	플라스틱제품	182	7.1	-119	214	17.2	-150
8	기초산업기계	177	-7.5	-108	201	13.2	-140
9	수송기계	183	-20.3	-93	146	-19.9	-83
10	산업기계	184	15.1	-118	129	-30.0	-67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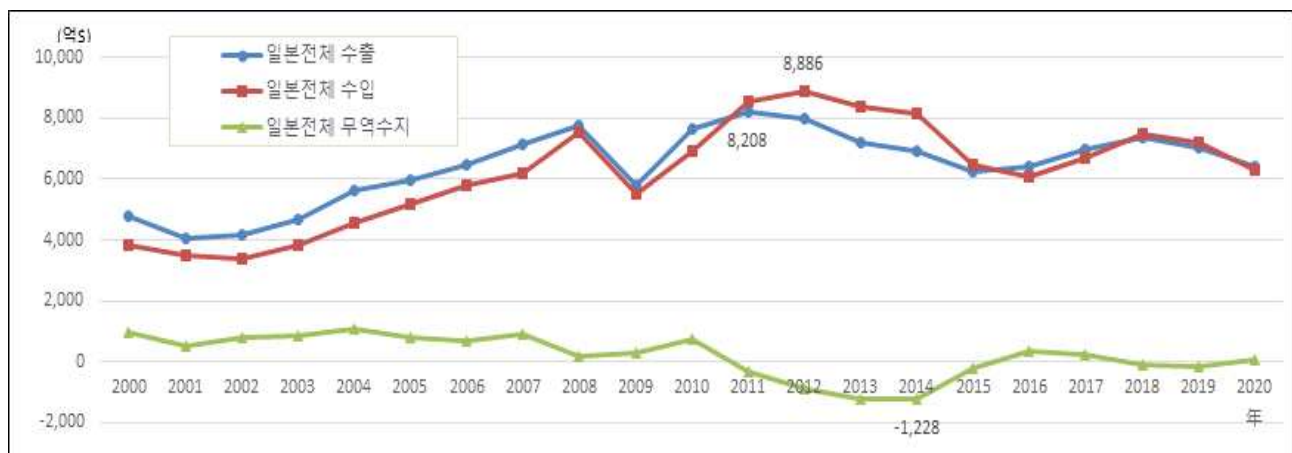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금속광물(21.6%), 정밀화학제품(14.3%) 등 6개 항목이 증가하였고, 기계요소공구및금형(-18.4%), 산업용전자제품(-17.9%) 등 4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정밀기계(40.4%), 전자부품(18.4%) 등 6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산업기계(-30.0%), 수송기계(-19.9%) 등 4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3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69억 달러 흑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2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2월 상황

	2020년 2월	2021년 2월	증감률
수출(백만¥, %)	6,319,706	6,038,238	-4.5
수입(백만¥, %)	5,206,662	5,822,376	11.8
수지(백만¥, %)	1,113,044	215,862	-80.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3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광물성연료, 선박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4.5% 감소하여 6조 382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통신기, 의류 및 의류부속품, 전산기종류(주변기기 포함) 등의 증가, 원조유(原粗油)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하여 5조 8,224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흑자가 80.6% 감소하여 2,159억 엔의 흑자가 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2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5.4%, 수입의 50.5%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4,048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19.4%, 수입의 24.8%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2,717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6.8%, 수입의 4.0%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764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0%, 수입의 4.1%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1,827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8.1%, 수입의 10.6%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4,725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4.1% 감소하였고, 수입은 9.6% 증가하였음
 - 영국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29.3% 감소하였고, 수입은 5.9% 감소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2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6,038,238	100.0	-4.5	5,822,376	100.0	11.8	215,862	-80.6
아시아	3,344,160	55.4	-0.8	2,939,399	50.5	36.9	404,761	-66.9
중국	1,174,319	19.4	3.4	1,446,014	24.8	114.6	-271,695	-
홍콩	259,102	4.3	-8.5	7,010	0.1	16.7	252,092	-9.1
대만	412,040	6.8	0.7	235,597	4.0	5.1	176,443	-4.6
대한민국	424,236	7.0	2.1	241,514	4.1	-7.9	182,722	19.2
싱가포르	166,260	2.8	-16.4	66,842	1.1	-5.5	99,418	-22.4
태국	281,551	4.7	5.0	225,825	3.9	4.3	55,726	7.8
말레이시아	132,898	2.2	2.2	172,552	3.0	6.7	-39,654	25.1
인도네시아	100,759	1.7	-10.1	153,380	2.6	-2.4	-52,621	16.8
필리핀	80,770	1.3	-16.3	87,736	1.5	1.4	-6,966	-
베트남	148,693	2.5	-9.2	192,995	3.3	22.6	-44,302	-
인도	109,314	1.8	4.3	41,156	0.7	-18.4	68,158	25.4
대양주	172,478	2.9	6.0	377,777	6.5	2.7	-205,299	0.1
호주	131,977	2.2	1.0	327,988	5.6	1.0	-196,011	1.0
뉴질랜드	20,671	0.3	11.6	14,714	0.3	-17.8	5,957	854.9
북미	1,169,150	19.4	-13.8	719,812	12.4	-1.2	449,338	-28.3
미국	1,092,350	18.1	-14.0	619,897	10.6	-3.7	472,453	-24.6
캐나다	6,799	0.1	-10.7	99,310	1.7	17.0	-22,511	-
중남미	243,311	4.0	0.9	236,986	4.1	-20.4	6,325	-
서유럽	691,878	11.5	-7.3	752,090	12.9	2.5	-60,212	-
독일	168,028	2.8	-4.1	214,017	3.7	9.6	-45,989	127.7
영국	91,805	1.5	-29.3	59,690	1.0	-5.9	32,115	-51.6
프랑스	56,313	0.9	-0.7	82,432	1.4	11.8	-26,119	53.8
네덜란드	109,778	1.8	-0.5	27,440	0.5	24.5	82,338	-6.8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48,887	2.5	-1.3	153,987	2.6	-14.8	-5,100	-83.0
중동	185,111	3.1	-7.3	544,586	9.4	-20.4	-359,475	-25.8
아프리카	83,263	1.4	-10.8	97,740	1.7	47.0	-14477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3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2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경우는 감소 품목이 증가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수입 경우는 증가 품목이 감소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 수출 경우는 원료품(11.6%), 식료품(10.6%), 화학제품(5.2%) 등 3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40.6%), 수송용기기(-12.8%), 원료별제품(-5.2%) 등 6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감소기여도가 높은 수송용기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2.8% 감소하였고, 세부적으로 자동차(-12.9%), 자동차부분품(-1.7%), 이륜자동차(-13.1%), 항공기류(-58.1%), 선박(-27.5%) 등 모든 품목이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전기기기(31.8%), 기타(30.5%), 원료별제품(29.4%), 일반기계(29.1%) 등 7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9.1%), 식료품(-2.7%) 2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증가기여도가 높은 전기기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31.8%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반도체등전자부품(5.7%), 절연전선·절연케이블(25.4%), 음향영상기기-부품포함(37.3%), 중전기(50.1%), 통신기(63.9%), 전기계측기기(7.6%) 등 모든 품목이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2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6,038,238	100.0	-4.5	-4.5	5,822,376	100.0	11.8	11.8
1 식료품	63,722	1.1	10.6	0.1	464,060	8.0	-2.7	-0.2
2 원료품	104,380	1.7	11.6	0.2	395,260	6.8	6.4	0.5
3 광물성연료	60,490	1.0	-40.6	-0.7	1,191,424	20.5	-9.1	-2.3
4 화학제품	762,690	12.6	5.2	0.6	622,038	10.7	3.3	0.4
5 원료별제품	668,157	11.1	-5.2	-0.6	563,148	9.7	29.4	2.5
6 일반기계	1,194,464	19.8	-1.4	-0.3	571,057	9.8	29.1	2.5
7 전기기기	1,081,506	17.9	-0.9	-0.1	959,057	16.5	31.8	4.4
8 수송용기기	1,313,539	21.8	-12.8	-3.0	219,345	3.8	9.8	0.4
9 기타	789,290	13.1	-4.8	-0.6	836,985	14.4	30.5	3.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3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8,536	4,038	18,687	7,410	27,873	11,145
한국 부분(억¥)	319	85	119	50	75	51
한국 비중(%)	3.7	2.1	0.6	0.7	0.3	0.5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월 12일, 2월 8일, 3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0년 12월 18,687억 엔(실행 47,027; 회수 28,339)에서 2021년 1월 27,873억 엔(실행 62,963; 회수 35,090)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0년 12월 119억 엔(실행 297; 회수 178)에서 2021년 1월 75억 엔(실행 221; 회수 146)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서 0.3%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0년 12월 7,410억 엔(실행 36,247; 회수 28,836)에서 2021년 1월 11,145억 엔(실행 34,460; 회수 23,316)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0년 12월 50억 엔(실행 886; 회수 836)에서 2021년 1월 51억 엔(실행 55; 회수 4)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서 0.5%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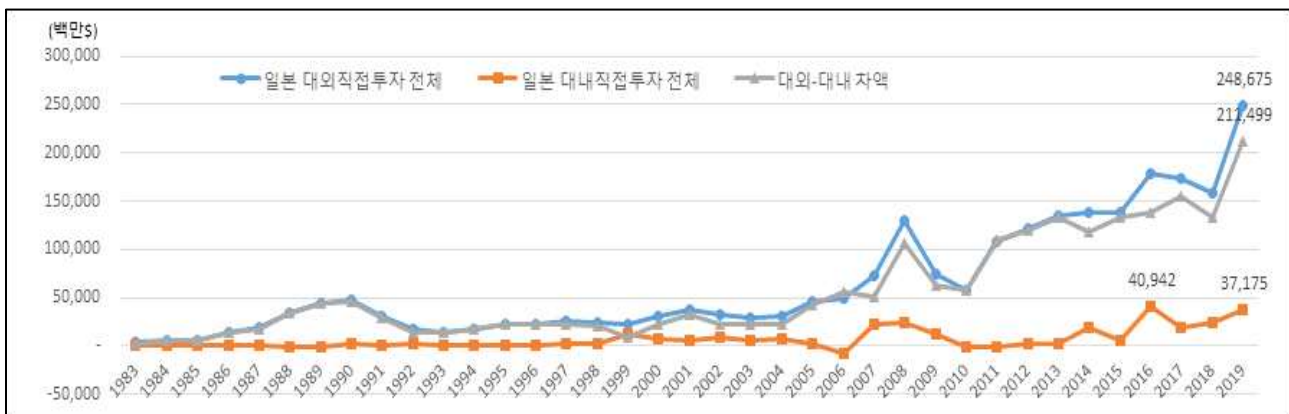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외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1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27,873억 엔, 대내직접투자 11,145억 엔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많았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27,873억 엔(실행 62,963; 회수 35,090)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아시아(49.6%)와 북미(35.6%)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9,593억 엔), 스위스(8,307억 엔), 싱가포르(7,774억 엔), 홍콩(2,214억 엔)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1,145억 엔(실행 34,460; 회수 23,316)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는 아시아(92.9%)로부터의 투자가 많았으며, 북미(8.0%)와 유럽(2.6%)으로부터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홍콩(9,818억 엔), 스위스(1,344억 엔), 미국(889억 엔), 싱가포르(719억 엔) 등으로부터 투자가 많았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0년 12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27,873	100.0	11,145	100.0
아시아	13,837	49.6	10,353	92.9
중국	928	3.3	-138	-1.2
홍콩	2,214	7.9	9,818	88.1
대만	261	0.9	15	0.1
한국	75	0.3	51	0.5
싱가포르	7,774	27.9	719	6.5
태국	812	2.9	-126	-1.1
인도네시아	256	0.9	0	0.0
말레이시아	1,233	4.4	12	0.1
필리핀	90	0.3	-3	0.0
베트남	121	0.4	-	-
인도	145	0.5	4	0.0
북미	9,917	35.6	894	8.0
미국	9,593	34.4	889	8.0
캐나다	324	1.2	6	0.1
중남미	1,343	4.8	-322	-2.9
대양주	154	0.6	-65	-0.6
호주	264	0.9	-56	-0.5
뉴질랜드	17	0.1	1	0.0
유럽	2,765	9.9	292	2.6
독일	166	0.6	81	0.7
영국	861	3.1	-352	-3.2
프랑스	18	0.1	-90	-0.8
네덜란드	-8,217	-29.5	-16	-0.1
중동	32	0.1	-8	-0.1
아프리카	-175	-0.6	-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3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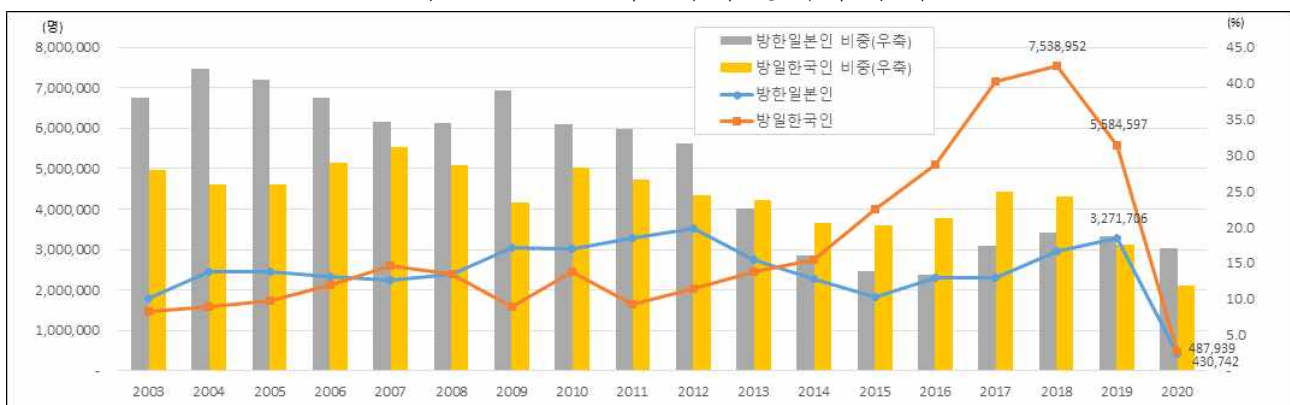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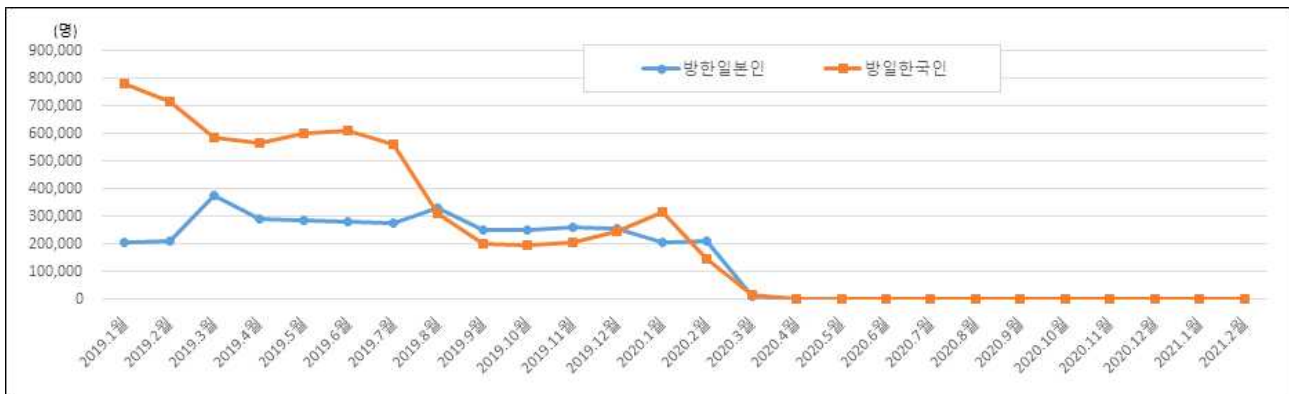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가 나타남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감소 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6월부터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25명, 12월 2,808명, 2021년 1월 2,500명, 2월 9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2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 있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2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2월	2021년2월	증감률		2020년2월	2021년2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85,212	65,582	-90.4	전체	1,085,147	7,400	-99.3
방한 일본인	211,199	1,719	-99.2	방일 한국인	143,896	900	-99.4
일본인 비중	30.8	2.6		한국인 비중	13.3	12.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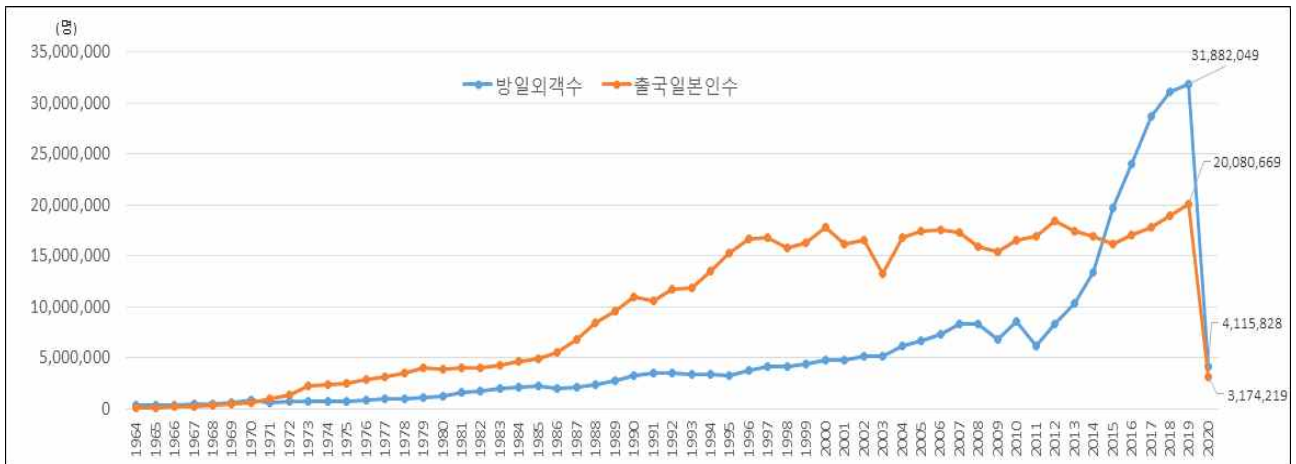
- 2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65,58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4%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71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2%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2월 30.8%에서 2021년 2월 2.6%로 감소하였음
- 2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7,4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3%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9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4%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2월 13.3%에서 2021년 2월 12.2%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12만 명과 약 317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2월 상황

- <표10>은 2021년 2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전체 측면에서도 개별 국가 측면에서도 방일외객수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7,4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3% 감소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900명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9.4%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1,700명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8.1%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400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9.8%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40명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9.97%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인 수는 600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0.9%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400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9.5% 감소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2월 상황

국가·지역	2020년 2월		2021년 2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방일외객수(명)	비중(%)	방일외객수(명)	비중(%)	
전체	1,085,147	100.0	7,400	100.0	-99.3
한국	143,896	13.3	900	12.2	-99.4
중국	87,220	8.0	1,700	23.0	-98.1
대만	220,420	20.3	400	5.4	-99.8
홍콩	115,613	10.7	40	0.5	-100.0
태국	97,957	9.0	90	1.2	-99.9
싱가포르	19,551	1.8	50	0.7	-99.7
말레이시아	26,589	2.5	70	0.9	-99.7
인도네시아	24,691	2.3	200	2.7	-99.2
필리핀	39,728	3.7	200	2.7	-99.5
베트남	39,905	3.7	200	2.7	-99.5
인도	6,582	0.6	600	8.1	-90.9
호주	48,522	4.5	30	0.4	-99.9
미국	73,373	6.8	400	5.4	-99.5
캐나다	17,601	1.6	20	0.3	-99.9
멕시코	2,968	0.3	20	0.3	-99.3
영국	18,645	1.7	70	0.9	-99.6
프랑스	17,123	1.6	80	1.1	-99.5
독일	10,937	1.0	50	0.7	-99.5
이탈리아	4,718	0.4	30	0.4	-99.4
러시아	6,702	0.6	90	1.2	-98.7
스페인	4,329	0.4	40	0.5	-99.1
중동지역	2,086	0.2	30	0.4	-98.6
기타	55,991	5.2	2,090	28.2	-96.3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Ⅳ.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3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3월 23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4-6월	2020년 7-9월	2020년 10-12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6	0.3	-4.8	-10.3	-5.8	-1.4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2.3	0.8	-2.1	-3.5	-2.9	-1.9	-1.1	-2.9	-0.8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3.9	-5.8	-10.0	-12.7	-19.8	-1.8	4.0	-6.4	-1.7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4.2 -2.3	90.5 -4.0	81.5 -9.9	80.9 -12.4	81.3 -10.1	80.5 -7.0	81.9 -3.7	78.4 -9.0	80.1 -3.1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10.1	5.5	4.2	7.0	8.5	3.3	10.6	29.4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7 2.8	-4.3 -1.1	-11.8 -6.6	-25.1 -4.8	-14.9 -11.1	-1.8 -3.2	-4.0 -2.4	-0.1 -2.0	5.3 -4.3	P -4.3 P 22.0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3.0	-10.1	-19.8	-12.8	-3.2	-3.9	-2.6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7	-3.5	-27.3	-46.6	-28.4	-0.7				
<도산> 기업도산전수 증감률	8,235 -2.0	8,383 1.7	7,773 -7.2	1,837 -11.4	2,021 -7.3	1,751 -20.8	569 -21.7	558 -20.7	474 -38.6	466 -31.4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8	2.7	3.0	3.0	3.0	3.0	2.9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2.6 1.0	0.2 0.5	-1.2 0.0	-2.3 0.1	-0.8 0.2	-2.1 -0.8	-2.3 -0.9	-2.0 -1.2	-1.5 -0.6	P -0.7 -0.4
<금융> 넷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2,310 110.40	21,697 108.99	22,705 106.73	20,784 107.61	22,906 106.20	25,194 104.49	25,384 104.40	26,772 103.82	28,189 103.70	29,458 105.36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2월, 3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약세 상태임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1월은 전월대비 3.0% 감소함

- ‘가계조사’ (1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7.3% 감소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1월)에서는 소매판매액이 전월대비 1.7% 감소함
 - 실질총고용자소득 및 소비자 심리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재화 분야에서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비스 지출에서는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보임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신차판매대수는 최근 약세임
 - 외식은 감소가 멈추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일부 업태에서는 낮은 수준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가는 가운데 회복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기대되지만, 감염증 동향에 따른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0-12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0년 10-12월기는 전기대비 0.3%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 감소, 비제조업이 0.7% 증가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약세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12월 조사 및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1-3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체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어느 쪽도 감소가 예상됨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과잉이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되고 있으며,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1월 전월대비 2.2% 증가하여 연율 80.1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보합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건실하게 추이하고 있음
 - 1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6% 감소, 2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12.3% 감소, 1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23.5% 증가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건실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되고 있음
 - 수출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아메리카 쪽 수출은 최근 약세이며, EU 쪽 수출은 최근 감소하고 있고, 기타 지역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2월의 방일외객수는 전년동월대비 99.3% 감소하였음
 -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아메리카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무역·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되어 있음
 - 1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1월에 전월대비 4.3%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1월에 전월대비 0.0%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2월은 전월대비 2.1% 증가, 3월은 전월대비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최근 보합 상태이고, 생산용 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전자 부품·디바이스는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감염 재확대에 따른 해외경제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비제조업에서는 약세가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도산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 ‘법인기업통계계보’ (10-12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12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0.7% 감소, 전기대비 15.5% 증가로 나타남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대비 13.2% 감소, 하반기에 전년대비 4.1%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대비 43.4% 감소, 하반기에 전년대비 25.3%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12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3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 대비 약간 신중한 견해로 나타남
- 도산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1월 474건, 2월 446건으로 되었고, 부채총액은 1월 813억 엔, 2월 674억 엔으로 되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자 수 등의 움직임에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1월에 전월 대비 0.1% 포인트 낮아져 2.9%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고,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하였음
 - 고용자 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신규 구인 수 및 유효구인배율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현금급여 총액은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이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12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계속적으로 전체 산업에서는 부족초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에서는 과잉초과로 나타났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 상태임
 - 2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 상태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2월에는 전월대비 4.4% 포인트 하락하여 69.8%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권대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상승-하락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주가는 30,100엔대에서 28,700엔대까지 하락한 후 30,200엔대까지 상승하였다가, 29,700엔대까지 하락함
 - 달러대비 엔화의 환율은 105엔대에서 109엔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2%대에서 -0.01%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5.9%(2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19.6%(2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9.6%(2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1년 3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3월 23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고용 확보와 사업 계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이에 더해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등에 기반하여 디지털 개혁 및 그린 사회 실현 등의 새로운 목표에 관해 규제개혁 등 집중적인 개혁과 필요한 투자를 함으로써 새롭게 강인한 경제성장을 실현함
- COVID-19 감염증의 감염확대에 대해서는 2주간 연장하고 있었던 4개 도현(都縣)의 긴급사태선언을 3월 21일자로 해제함
- 계속해서 감염 재확대 억제에 최우선으로 해서 대책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함
- 나아가 성장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대담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촉구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 실현에 연결시킴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등을 구체화 하는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과 더불어, 2021년도 예산 및 관련법안의 조기 성립을 위해 노력함
- 또한 3월 16일에 정리한 ‘비정규고용 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신속하게 실행함
- 계속 감염상황 및 경제적인 영향을 주시하면서 예비비도 활용하여 기동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감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3월 19일에 2%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완화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경제 및 해외정책 관련 동향

- 경기동향지수 상향 및 COVID-19로 인한 숨은 실업
 - 일본 내각부가 3월 8일 발표한 2021년 1월 경기동향지수에서 경기 현상을 나타내는 ‘일치지수’가 전월대비 3.5포인트 상승하였음
 - 일치지수의 상승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의 생산과 출하 증가가 주된 이유임
 - 한편, COVID-19의 장기화로 휴업자가 급증하고, 파트타임 등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아졌음
 - 고용계약이 계속될 경우에는 일하지 않더라도 정부 통계상에는 휴업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 완전실업자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시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 근무시간의 감소는 수입의 감소로 연결됨
 - 특히, 여성의 경우 COVID-19의 영향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업, 음식업의 취업비율이 높았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영향이 더욱 큼
 - 일본정부는 기업의 휴업수당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확보한 예산 가운데 지급결정액은 14%에 그치고 있음

(출처: NHK, 2021.03.08.; 요미우리신문, 2021.03.09.)

- 일본정부의 해외정책 관련 동향
 - 일본정부는 2020년 100개국·지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투자협정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함
 - 특히 투자협정이 늦어지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발효와 서명 등의 단계에서 중국이나 한국의 투자협정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임
 - 경제산업성은 3월 2일 전문가회의에서 자원외교에서 주축인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중요시하면서, 탈탄소를 염두에 두고 수소나 암모니아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의 ‘포괄적 자원외교’ 전개가 필요하다고 했음
 - 자원외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포괄적인 자원외교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
 - 3월 22일 WTO회원국 회의에서 일본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각국이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의 철폐를 제안하였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1.03.01.; 산케이신문, 2021.03.02.; 2021.03.22.)

□ 일본 정부의 산업관련 정책

○ 일본 정부의 탈탄소화 정책

- 재생에너지는 탈탄소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용 절감이 필수적임
- 일본의 경우 국토의 제약이 큰데, 재생에너지의 주력인 태양광의 경우 일사량이 크지 않아 설비 이용률이 스페인(약 20%) 등에 비해 낮음
- 전문가회의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기존의 고정가격매입제도는 고정 가격으로 일정기간 전력을 매입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자의 비용 절감 의욕이 낮아지기 쉬움
- 3월 2일 2050년까지 탈탄소사회 실현이라는 일본정부의 목표를 명시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탈탄소 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 잡힌 사회라고 정의하였으며, 배출 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투자 촉진책을 포함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역 활성화로 연결하는 제도도 창설함
- 국토교통성은 일본국내 공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재생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근시일 내 검토회를 개최하고 재정이나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장래적으로는 전국 98개 공항에서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목표로 함

(출처: 닛케이신문, 2021.03.01.; 2021.03.02.; 2021.03.08.; 산케이신문, 2021.03.02.)

○ 자동차, 주택에서의 탈탄소화 및 홋카이도 무로란시 탈탄소협의회

- 3월 8일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자동차·배터리 분야의 실행 계획 책정을 위한 첫 검토회를 열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동차 도입 목표, 인프라 정비 동향 등을 보고하였으며, 관련 업계의 대응도 소개되었음
- 일본의 경우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HV(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은 반면, EV(전기자동차)로의 이행은 늦어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주택 정책의 기본 전략인 ‘주생활 기본계획’을 각의결정하였으며, 2030년 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2013년 대비 18% 삭감하는 목표를 세웠음
- 주택분야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며, 에너지 소비를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ZEH(제로에너지하우스)의 보급도 추진함
- 홋카이도 무로란시는 5월에 ‘무로란 탈탄소사회 창조 협의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으며, 일본제철, 일본제강소M&E, ENEOS홀딩스, 에어·위티, 홋카이도전력 등 20개사가 참가함

- 무로란시의 인구는 기업 생산 축소 등으로 감소하였는데, 수소를 활용한 도시 조성
에 주력함
 - 홋카이도 내에서 남은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수소를 무로란시에 저장하고 항구에서
홋카이도나 도호쿠 지역에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출처: 산케이신문, 2021.03.08.; 닛케이신문, 2021.03.19.)

□ 한일 관계

- 조선대학교 비난 가두선전 금지 및 징용공 소송
 - 조선대학교(도쿄 고다이라시) 주변에서 학교 등을 비난하는 가두선전을 하는 남성의
활동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소송에서 도쿄지법 다치카와지부는 정문에서 반경 500미
터 이내에서의 연설 및 슈프레히쿨(집단적으로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일종의 시위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림
 - 학교측을 비난, 중상하는 전단지 배포 및 플래카드, 깃발의 게시도 금지했음
 - 한국법원은 전 징용공과 유족 등 85명이 일본 기업 17개사에 대해 배송을 요구한
재판의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시송달절차를 거쳤음
 - 5월 18일에 서류가 일본측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어, 5월 28일에 심리가 개시될
것으로 보임
 - 한일관계와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한 연구자 및 변호사 등 8명이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하여’ 라는 논문을 3월 24일 발표하고 마음에 닿는 성실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에 호소하였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1.03.08.; NHK, 2021.03.18.; 아사히신문, 2021.03.18., 2021.03.25.)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Supply Chain 개선 관련 동향

- 일본 기업들의 부품 공급망 개선 및 강화
 -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었고, 공급망은 최근 10년간 강화되어 왔음
 - 자동차의 경우 약 3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지진 당시 500여개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피해를 입었고, 토요타자동차도 생산 중지에 몰렸음
 - 토요타는 당시 1차 거래처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 부품 공급망이 끊겼는지를 파악하기까지 3주라는 시일이 소요됐고, 이에 토요타는 부품 공급망 데이터베이스인 ‘레스큐’를 만들어 10차 거래처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 2021년 2월 발생한 지진에서 토요타는 부품 조달처 상황을 파악하는데, 1일이 소요되었음
 - 그러나 자연재해 외의 COVID-19라는 재난으로 인해 PC용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났고, 자동차용 반도체가 2020년 말부터 구조적으로 부족하기 시작하였음
 - 이로 인해 메가 서플라이어인 독일 콘티넨탈, 보쉬 등은 반도체를 사용하는 부품을 수월하게 생산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는 토요타, 혼다, 닛산 등의 감산으로 이어짐
 - 자동차산업은 기존과 같은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메가 서플라이어와의 새로운 협조 속에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사업계속계획)를 진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외무·방위 담당 각료 협의에서 일본 기업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의 분산을 위한 협조를 확인하였음
 - COVID-19로 마스크,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중국에 집중되는 위험이 표면화되어 일본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3월 24일 반도체와 디지털산업의 전략에 관한 첫 회담인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공급망 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는 국가의 기둥으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설명하였음

(출처: 아사히신문, 2021.03.11.; 산케이신문, 2021.03.11.; 2021.03.24.; 닛케이신문, 2021.03.30.)

□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반도체산업 등 동향

- 일본 자동차산업 및 조선산업 동향
 - 토요타자동차와 이스즈자동차는 3월 24일 상호출자한다고 발표
 - 토요타자동차의 자회사인 히노자동차를 포함하여 4월에 3사에서 공동출자회사를 세우고 상용차 CASE(연결성, 자율주행, 차량공유, 전동차) 분야에서 제휴하며,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킴

-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공장의 화재로 인한 반도체 부족의 여파로 자동차산업에서 감산을 검토하고 있음
- IHI는 3월 8일 조선소로 사용하던 아이치 사업소(아이치현 시타시)의 토지 약 40만 평방미터에 대해 오오노개발(마쓰야마시)에 9월까지 매각하는 방향으로 교섭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IHI는 COVID-19로 엔진 제조 등 주력인 항공사업이 부진에 빠져 있고, 경영개선을 위해 성장사업 창출과 토지 등 보유자산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미쓰비시중공업은 나가사키조선소 고야기 공장에 대해 오시마조선소와 3월 30일 정식으로 매각계약을 맺음
- 고야기 공장의 매각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LNG운반선 등 대형 선박 건조에서 사실상 철수하게 됨

(출처: 산케이신문, 2021.03.08.; 닛케이신문, 2021.03.24.; 2021.03.31.; NHK, 2021.03.30.)

○ 일본 반도체산업 동향

- 도시바는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파워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장치를 일본국내 주력 공장에 도입함
- 파워반도체는 전력을 동력으로 효율적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등의 소비 전력을 억제할 수 있음
- 파워반도체는 일본 기업들이 세계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조사업체 옴디아는 2024년에 세계 파워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0년의 약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신금속협회는 전자기기의 전압이나 전류를 제어하는 파워반도체용 웨이퍼에 관한 표준규격을 책정했는데, 측정 방법을 통일하면 양품율의 향상으로 연결되어 공급원 분산을 통한 공급망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음
- 반도체 대기업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나카이공장에서 3월 19일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제조되는 반도체의 60%가 차량용이었다고 함
- 한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 4월 후반에 가동을 재개하여 서서히 설비를 움직여 출하해 나갈 방침이며, 화재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90~1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음
-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화재는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출처: 닛케이신문, 2021.03.09.; 2021.03.12.; 2021.03.31.; 요미우리신문, 2021.03.21.)

□ 일본 탈탄소 관련 산업 동향

○ 일본 기업들의 탈탄소화 대처 동향

- 마루베니상사는 3월 9일에 2050년까지 온난화가스 배출량 넷제로(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는 상태)를 향한 행동 계획을 공표하였는데, 그룹 내에서 보유하는 삼림(森林)자산의 확대나 CO2 회수 등으로 삭감할 수 없는 만큼의 온난화 가스를 흡수함
- 또한, 마루베니상사는 재생가능 에너지나 수소·암모니아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도모함
- 이와타니산업은 연료전지차용의 수소 스테이션 정비를 가속하여 2022년 3월말까지 약 20개소를 증설함
- 2020년에는 이와타니산업, 토요타자동차,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등이 중심이 되어 ‘수소밸류체인추진협의회’를 설립하였음
- 세이코엡손은 3월 16일 일본 국내 공장이나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2021년도(2022년 3월말)까지 모두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음
- ZEH(제로에너지하우스)는 집세는 비싸지만 광열비는 억제할 수 있으며, 주된 타겟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은 젊은 세대로 주택 분야에서도 탈탄소가 부가가치가 될 수 있음
- 미쓰비시중공업은 2020년 10월 공표한 2022년 3월부터의 3개년 사업계획으로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성장 분야로 내걸었으며, 2021년 3월기에 해외에서 참가한 수소 제조 등 프로젝트는 이미 10건 이상임
- 미쓰비시상사는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PT Panca Amara Utama, 국립 반둥공과대학 등 4개사와 CO2회수저류(CCS)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조사 각서를 맺었음
- 석유연맹은 2050년 석유업계 전체 사업활동에서 CO2 배출량 실질제로를 목표로 하는 방침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음
- 탈탄소 특허를 분석한 결과 토요타자동차, 파나소닉, 소니 등 3개사가 상위 20개 기업에 포함되었으며, 일본 기업들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1.03.09.; 2021.03.08.; 2021.03.19.; 2021.03.21.; 아사히신문, 2021.03.12.; 2021.03.16.; 산케이신문, 2021.03.19.)